

항구 도시 부산, 북항 개발 · 도시재생 통해 국제 물류 도시로

-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꼴찌 수준인 하수도 사업 추진시 4.2만명 일자리 창출 -

유 위 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wsyoo@cerik.re.kr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과 도시 경쟁력 강화 전략

지난 6월 당선된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를 막고 도시의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에서 내건 5대 공약을 실천하여 향후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하였다. 공약의 핵심은 도시재생을 통해 부산을 아시아 최고의 해양 수도로 자리매김하고, 부산의 경제 성장 속도를 더디게 한 기존의 현안들과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들을 임기 중에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 중 건설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 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부산의 인프라 현황을 분석한 후 부산시 인프라 투자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먼저, 부산시장의 건설 관련 핵심 공약을 살펴보면 부산을 유라시아 관문의 동북아 미래 물류 허브의 중심으로 개발하고 김해신공항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가덕도신공항을 재추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여 북항을 4차 산업과 결합한 스마트 마린시티로 통합 개발하는 방안도 핵심 사업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부산시장은 동삼 · 센텀 · 문현 혁신지구의 각 클러스

터를 결합해 북항 재개발과 연계한 통합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인프라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실현되면 부산은 향후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 물류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부산의 인프라시설

아래에서는 부산 지역의 인프라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부산시장의 공약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한 현안들을 분석했다. 부산 지역의 인프라시설은 크게 교통시설¹⁾, 물관리시설²⁾, 주거 및 교육시설³⁾, 산업 및 경제시설⁴⁾, 기타 시설⁵⁾ 등 5개 부문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교통시설에서 도로는 1인당 도로 연장이 0.88m로 타 시 · 도보다 낮은 실정이다. 도로 포장률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전국 평균인 92.4%, 인천의 96.06%와 비교해 부산시는 98.2%로 다소 높으나, 노후화에 의한 성능 저하

1) 도로, 터널, 교량, 항만, 지하철, 도시철도, 공항, 터미널 · 주차장 등.

2) 상 · 하수도, 환경개선사업, 재해방지, 댐 및 저수지 등.

3) 주거단지(도시재생), 교육(학교, 도서관 등)시설 등.

4) 산업단지, 물류시설, 전통시장 등.

5) 문화, 복지, 관광, 체육.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 및 추진 과제

핵심 공약	추진 과제
대륙과 바다를 잇는 동북아 해양 수도로 위상 강화	• 해양 수도의 위상을 제고하는 거버넌스 구축 • 환동해권 경제벨트의 거점과 유라시아 게이트웨이의 기중점으로 육성 • 북방경제 · 물류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 물동량 급증, 선박 대형화 등 해운 · 항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행 확장 • 해운 · 항만업의 금융 지원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기능 강화
부산의 국가혁신클러스터 통합 및 육성	• ‘국가혁신클러스터 정책 및 혁신도시 시즌 2’와 연계하여 북항 일원을 중심으로 3개 혁신지구 (동삼 · 센텀 · 문현 혁신지구) 통합 혁신클러스터 구축 • 동삼혁신지구와 연계한 무인자율운항 선박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신해양산업 지원 • 센텀혁신지구와 연계된 문화 콘텐츠산업 활성화 및 문현혁신지구와 연계된 금융클러스터 육성 •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부산형 청년 일자리 창출
북항 일원 통합 재개발	• 북항 재개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입주 업체에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 지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북항 스마트 마린시티 건설 • 청년 문화타운 조성 등 청년 문화허브 구축 •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이전 및 재배치
부산형 도시재생 뉴딜 추진	• 도시재생 민 · 관 협치 시스템 구축 •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 북항 통합개발 사업과 원도심 재생사업 연계
시민이 참여하는 부산시정 혁신	• 소통 · 투명 시정을 위한 시민청원제 도입과 개방형 감사관제 활성화 •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기존 부실 병원 인수를 포함한 공공 병원(보험자 병원 포함) 확대 추진, 2030 부산 등록엑스포 유치 등 부산 핵심 현안의 협치를 위한 시민협의회 구성 • 글로벌 도시 기준 마련을 위한 외국인시민위원회 설치 • 부산형 분권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보충성 원칙 준수 및 시장 · 기초자치단체장 자치회의 정례화

진단은 별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량은 사용 연수 20년 이상 노후 교량이 전체의 약 80% 수준 이고, 안전 등급은 B등급 이하의 1·2종 교량이 전체 중 약 80%에 달한다. 항만의 경우, 동북아 국제 물류 중심 항만(Hub-Port) 조성을 위해 강 서구 가덕도 북안, 창원시 진해구 용원 · 용동 · 제 덕만 일원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물관리시설 중 상수관로는 생활용수관이 97.2%, 공업용수관이 2.7%, 온천수관이 0.1%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용연수 15년 이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54.9%를 차지하고 있어 정밀 조사로써 구조적 상태를 등급별로 파악하여 개 · 보수 및 교체 등의 인프라 개선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노후 관로에 대한 투자 계획 부족은 지반 침하(싱크홀) 현상 등 여러 가지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민 안전성 확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노후관로 개선 사업에 지자체의 선제 적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하수관로는 보급률이 60.8%로 타 지자체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8개 특별 ·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로 조사되어 하수도 개선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인프라 지원이 절실한 상황 이다. 물관리시설 중 시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 계가 있는 노후화된 상 · 하수도의 정비 사업과 단 기적 신규 사업은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주거 및 교육시설 중 초등학교는 총 308개소로 공립 301개소, 사립 6개소, 국립 1개소다. 중학 교는 총 174개소로 공립 137개소, 사립 37개소, 국립 0개소이며, 고등학교는 총 146개소로 공립



지난 6월 당선된 오거돈 부산시장은 도시재생과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들의 개선을 통해 부산을 향후 국제 물류도시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64개소, 사립 78개소, 국립 4개소이다. 특수학교는 총 15개소로 공립 8개소, 사립 7개소, 국립 0개소로 조사되었다. 부산시는 최근 급증하는 지진 등 재해 위험에 대비하려면 노후화된 교육시설에 대한 선제적 성능 개선, 내진설계 보강 등 대응형 관리 인프라 투자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산업 및 경제시설의 경우 동부산권에는 ‘센텀시티’, ‘회동·석대첨단산업단지’, ‘센텀2지구’ 등 융·복합 첨단 도시를 건설하고 동남권에는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를 개발해 아시아 의료 허브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두 지역은 휴양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동부산 관광단지와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부산권은 낙후된 공업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상 스마트밸리 건설’, ‘국제 물류 중

심지’, ‘친수·친환경 에코델타시티’, ‘과학연구단지’ 등 전략 산업 위주의 대규모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노후화된 공업 지역(산업단지)과 관련해서는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기본 구상 수립), 사상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공업지역 기업환경 개선 등 재정비사업도 진행 중이다.

기타 시설 중 문화시설은 부산시립미술관 등 총 32개소의 갤러리와 부산과학체험관 등 18개의 전시 공간, 가온아트홀 등 총 37개소의 공연장, 롯데시네마 및 대영 등 총 23개의 영화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시설 중 경기장으로는 종합운동장, 구덕운동장, 요트경기장, 강서체육공원, 기장체육관, 영도사격장이 있으며, 경기장별 성능개선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공원시설은 어린이 공원이 44.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공원 32.6%, 근린공원 16.7% 순으로 나타나 향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도로 및 재해방지시설에 대한 투자 시급

부산 지역의 인프라 시설물 가운데 중요도는 높으나 성능 수준이 낮아 신규 투자가 시급한 그룹은 도로시설, 문화·복지·체육시설, 재해방지시설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요도와 성능 수준이 모두 평균값보다 높은 그룹은 상·하수도, 공원·녹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거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도와 성능 수준이 평균값보다 낮은 시설물은 항만시설, 터널, 댐 및 저수지, 산업·물류단지, 교량시설 등이고, 상대적으로 성능 수준이 중요도보다 높아 투자 확대의 시급성이 낮은 시설물은 철도시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이다.

다음으로, 인프라 시설물의 중요도와 안전 수준을 살펴보면, 중요도는 높으나 안전도가 취약해 노후 인프라 투자가 가장 시급한 그룹은 재해방지시설, 하수도, 도로시설이었다. 아울러 중요도와 안전도가 모두 평균값보다 높은 그룹은 공원·녹지, 교육시설, 의료시설, 문화·복지·체육시설, 상수도시설로 조사되었다.

글로벌 국제 해양 도시로 도약하려면...

부산 지역의 인프라 현황 및 시민들의 인프라 인식조사, 그리고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을 진단해본 결과, 부산이 아시아 최고의 해양 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의 공동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산시의 하수도사업은 도시재생의 필수적

인 분야로, 그 수준이 전국 평균 보급률에 도달하려면 향후 3,000km의 하수도 설치 사업이 단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약 4만 1,700명⁶⁾의 일자리 추가 창출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공공 차원에서 부산 지역이 인프라 경쟁력 제고로 도시 위상을 높이려면 중앙정부의 인프라(SOC) 지원 재원의 꾸준한 증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인프라투자재원성장률(%)을 국가총생산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역별 현실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부산시도 정부·지자체와 민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공적 재원의 총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인프라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인프라 소요 사업을 기획하고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프라 시설물은 성능 보강 사업 위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노후 인프라에 대한 유지관리 체계의 구축과 투자 확대가 요구되는 것이다.

부산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과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이행이다. 이를 위해 시는 연속적인 투자 재원 지원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동 인구, 고령화 등 도시의 미래 환경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해 도시재생사업을 펼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부산이 국제 해양 도시로 도약하려면 인프라 관리 체계를 구축한 후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17년 11월에 제정된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재원 마련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END**

6) ‘부산광역시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연구’ 세미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부산발전연구원, 2018.5.